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이 영**

【국문초록】

고려 공민왕이 15년(1366)에 일본에 왜구의 금압을 요청하기 위해 파견한 외교 사절은 왜구가 발생한 지 무려 17년이나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 조정이 17년 동안이나 사절 파견을 자제한 것은 원명 교체기의 혼란과 연동된 국내외의 혼란을 보이지 않기 위해 취해진 일관된 외교 정책에 입각한 것이었다.

또한 그 사절 파견은 원나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려 조정의 단독적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 고려는 거짓으로 원나라 황제의 존재를 이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의 의도는 적중해 당시 일본 조정은 약 1세기 전에 몽고와 고려 연합군이 두 차례나 침공해 온 사실을 떠올려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 결과 일본은 그때까지 소극적이었던 규슈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파견과 그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민왕 15년(1366)의 사절 파견은 소강상태에 있었던 남북조 내란을 단숨에 급진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禁倭使節・규슈탄다이(九州探題)・고려의 對日 교섭・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정서부(征西府)・征東行中書省・잇시키 노리우지(一色範氏)・神功皇后・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명나라 태조 朱元章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4-074-AS0016).

** 방송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차례

1. 서 론
2. 禁倭使節 파견 지체의 배경
 1) 기존 연구의 재검토
 2) 공민왕의 對元 정책
 3) 공민왕의 對日 정책
3. 금왜사절 파견의 實像과 意義
 1) 공민왕 15년 禁倭 사절의 의문점
 2) 금왜사절 파견의 실상
 3) 사절 파견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의의
4. 결 론

1. 서 론

왜구는 약 4세기(13세기~16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물론, 한・중・일 삼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至大한 영향을 끼친 역사 현상이었다. 그런데 現今의 倭寇像은 많은 부분이 歪曲되었으며,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적지 않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에서 중세에 해당하는 역사 현상인 왜구는, 고대 또는 근세 이후 근대까지의 일본의 대외팽창 현상과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領土慾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과 財貨를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고려 말의 왜구, 소위 '경인 이후의 왜구'는 당시 남북조 내란기(1336~91)였기에, 일본의 公權力이 약탈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쇼니씨(少貳氏)와 규슈 남조(征西府)가 왜구의 주체였기에 장기화・대규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

중세 일본인들의 대외 팽창(왜구)에는 내부적으로는 일본 사회의 모순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원 제국의 붕괴에 따른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혼란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었다. 본고는 경인년(1350) 이후 고려를 침구해 온 왜구가, 어떠한 일본 국내 및 국제 정세 속에서 발생하고 변화되어갔으며, 이에 대하여 고려 왕조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갔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특히 공민왕 15년(1366)의 왜구 금압을 요구하는 사절(이하 『금왜사절』이라 한다)의 파견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왜구가 원명(元明) 교체기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어떠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있는지 생각한다.

2. 禁倭使節 파견 지체의 배경

1) 기존 연구의 재검토

고려 조정이 '경인년(1350)의 왜구'[2] 이후, 일본에 금왜사절을 파견한 것은 공민왕 15년(1366)이었다. 이 해는 남조의 正平 21년, 북조의 貞治 5년에 해당한다. 이후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모두 10차례의 금왜사절 파견이 확인 된다.[3] 이하 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연구가 지닌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이 사건을 처음 본격적으로 검토한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는 그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1)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졸고,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일본역사연구』 제24집 2006년 12월호 참조.

2) 왜구의 정의와 분류 등에 대하여는 졸고, 「전환기(轉換期)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倭寇) －'경인년 이후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국역사학회 123호, 2003년 12월 참조.

3) 후술하는 바 <표 5>를 참조.

> "아시카가 막부가 직면한 최초의 외교적인 사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략) 또한 고려로서는 왜구 진압책의 하나로 海賊禁制를 요구하는 사절을 최초로 아시카가 막부를 위시해, 일본의 要路에 파견한 것이었다. 고려가 멸망한 뒤에도 사절은 계속 파견되어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마침내 밀접한 通好貿易 관계를 발생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4]

나카무라는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이, 고려(조선)의 일본에 대한 최초 파견이라고 하는 점과, 이후 양국 사이에 전개된 통호 무역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지적하고 있을 뿐, 왜구의 금압과 관련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지 않았다. 금왜사절에 대한 나카무라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려(조선) 측의 외교적 노력은 금왜(禁倭)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본래 의도와는 달리 양국간의 통호 무역을 열게 하는 계기만을 제공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된다.

남북조 시대 연구의 대표적인 명저로 손꼽히는 『南北朝の動亂』[5]에서 사토 신이치(佐藤進一)는, 규슈 남조(南朝, 征西府)의 가네요시(懷良) 친왕의 對明外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면서도, 공민왕 15년의 사절 파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는 이 사건의 의의에 대하여 "이 사절의 파견은 왜구의 금지에 다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고려사』 공민왕 17년조에는 왜구에 관한 기술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6]고 했다. 그러나 다나카 역시 당시의 사절 파견이 왜구 금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4)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 「太平記に見えた高麗人來朝の記事に就いて」는 다이쇼(大正) 14년(1925) 12월 탈고, 쇼와(昭和) 6년(1931) 4월에 수정한 뒤, (『日鮮關係史の硏究』 上, 吉川弘文館, 1965)에 재 수록했다.

5) 佐藤進一, 『南北朝の動亂』, 日本の歷史 9, 中央公論社, 1965.

6) 田中健夫, 「十四. 十五世紀の倭寇と武家外交の成立」 『日本歷史大系』 2, 中世, 山川出版社, 1985.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1367년에 왜구 금압을 요구하는 고려 사신이 도래한 이후, 왜구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관계 중 가장 基底的인 요인이 된다."[7]라고 하였을 뿐 이후의 모든 서술은 日明關係에만 집중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를 단순 서술하고, "왜구의 禁寇은 상당히 실효가 있었던 것 같아서 1368년에는 드물게도 왜구의 入寇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8]고 할 뿐,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이 이후의 남북조 내란의 전개와 왜구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는 이 사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 아시카가 정권이 외교를 자신의 권력 하에 장악해가는 단서가 되었다. 둘째, 막부로 하여금 규슈(九州) 평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규슈탄다이(九州探題)를 시부카와 요시유키(澁川義行)에서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으로 바꾼 것과 이 사건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었다,[9] 고 했다. 그러나 가와조에 또한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의 도래가 당시 내란 중이던 일본 사회에 미친 파장이나 또 그것이 이후 왜구 금압과, 그리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규슈 남조 세력의 평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나카무라・사토・다나카・무라이・가와조에의 연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의 파견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意義에 대한 시각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후 왜구 문제를 둘러싼 고려와 일본 간의 외교 교섭

7) 村井章介,「建武・室町政權と東アジア」『講座日本歷史』4, 中世 2, 歷史學硏究會・日本史硏究會編集, 東京大學出版會, 1985.
8) 村井章介,「庚寅以來之倭賊と日麗交涉」『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9) 川添昭二,「九州探題今川了俊の對外交涉」『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獻出版, 1997.

도 단지 언제, 누가 사절로 양국 간으로 왕래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금왜를 둘러싼 일본의 대외교섭은 오로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를 '일본국왕'에 책봉한 문제에만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 이후 이어지는 사절 파견이 왜구금압과 어떠한 상호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10차례에 걸친 고려의 사절 파견은 왜구의 금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또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만약 있었다면,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공민왕 15년의 사절 파견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공민왕의 對元 정책

본 절에서는,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당시 고려 조정이 왜구 문제와 관련해서 취했던 對元 외교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금왜 사절 파견이 지닌 의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한 나카무라・가와조에 두 사람의 경우에도 금왜사절 파견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의의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많다. 예를 들면, '고려가 금왜사절 파견을 17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이유'라든가, '최초의 금왜사절 파견에 원나라가 개입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문제이다. 이하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 파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이 사건의 개요는 『타이헤이키(太平記)』 권39, 「高麗人來朝事」에 보이는 데, 관련 사료도 남아있어서[10] 그 경과를 알 수 있다. 그 사료에 따르면, 정치(貞治) 5년 9월, 고려 사신 김용(金龍)이 이즈모(出雲) 지방

에 도착,[11] 그 다음 해 2월 14일에 셋쓰노구니(攝津國) 후쿠하라(福原) 효고노시마(兵庫島)[12]를 거쳐서 교토(京都)에 들어왔다.[13] 이 당시 고려 사신이 제출한 첩장(牒狀)이 『타이헤이키』 권39, 「高麗人來朝事」와 「호온인몬죠(報恩院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이 「호온인몬죠」에는 일본국에 보내는 원나라 征東行中書省의 劄付와 咨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至正 10년(正平 5, 觀應元年, 1350) 즉, 경인년 이래 창궐하고 있던 왜구를 금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14]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고려의 금왜사절 파견은 경인년(1350)에 왜구가 재침한 지 무려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왜구가 발생하면 곧 일본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던 13세기 당시와 비교한다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을 보자.

〈표 1〉 13세기의 왜구와 외교적 대응

	연월	피해지역	규모	결과·내용	출신지	사 료	사절파견
①	1223/5	금주(김해)	?	?	?	「高」	
②	1225/4	경상도연해주군	2척	전원 체포	?	「高」	
③	1226/正	경상도연해주군	?	왜구 2명을 살해	?	「高」	
④	1226/6	금주	?	?	對馬·松浦黨	高·吾·明	
⑤	1227/4	금주	2척	왜구 30명을 살해	?	「高」·「吾」	동년 5월, 전라도 안찰사가 파견

10) 『大日本史料』 제6편 해당조.
11) 『太平記』 권39, 「高麗人來朝事」
12) 『善隣國寶記』
13) 『後愚昧記』 貞治 6년 3월 24일조.
14)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 「今川了俊の對外交涉」 『九州史學』 제75호, 1982년 10월.

⑥	1227/5	금주 웅신현	?	왜구 7명을 살해	對馬	「高」·「吾」	동년 12월 박인을 파견
⑦	1232/9	?	?	다수의 보물 약탈	松浦黨	「吾」	
⑧	1251	?	?	금주에 성을 쌓다	?	「高」	
⑨	1259/7	?	?	?	?	「高」	한경윤·홍저를 파견
⑩	1263/2	금주웅신현물도	?	조운선을 약탈	對馬	「高」·「靑」	동년 4월, 홍저·곽왕부를 파견
⑪	1265/7	남도연해주군	?	?	?	「高」	

* 「高」는 『고려사』, 「吾」는 『아즈마가가미(吾妻經)』, 「明」은 『메이게쓰키(明月記)』, 「靑」은 『아오가타몬죠(靑方文書)』를 의미한다.

<표 1>의 '13세기의 왜구'는 ①(1223년 5월)의 왜구 발생에서 ⑥(1227년 4월)까지의 왜구에 대응해 최초 발생 이후 4년만인 1227년 5월 14일에 전라주도 안찰사 趙 아무개가 첩장을 보내왔으며,[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에 또 왜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에 박인을 파견했다.[16] 또 ⑨의 1259년 7월의 사절 파견[17]의 배경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지만, 역시 소규모의 침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⑩의 1263년 4월에 홍저와 곽왕부를 파견한 것[18]은 그 해 2월의 금주 웅신현 물도에 침구해 조운선을 약탈한 것에 대한 항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3세기의 왜구'는 소규모(예를 들면, 선박 2척, 왜구 30명을 살해)였으며, 또 거의 대부분 고려군에 의해 소탕되고 있다. 즉 고려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인 위기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금왜사절은, 총 11건의 왜구에 모두 4차

15) 『아즈마카가미(吾妻鏡)』, 安貞 元年 五月 十四日條.
16)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14년 12월조.
17)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6년 7월조.
18) 『고려사절요』 권15, 원종 4년 4월조.

례나 파견되고 있다. 또한 그 파견시기도 최초 발생에서부터 만 4년 뒤(⑤), ⑥의 5월에 왜구가 발생한 지 7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⑩의 1263년 2월에 왜구가 발생한 지 불과 2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중 빠르게는 2개월 뒤, 늦어도 만 4년 뒤에는 파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인년 왜구'의 규모와 빈도는 어떠했을까? 다음의 <표 2>를 보자.

〈표 2〉 경인년(1350) 왜구의 침구 상황

시 기	침구지역	규 모	비 고
2월	고성・죽림・거제	?	왜구 300명을 참수하다
4월	순천부	100여척	남원・구례・영광・장흥의 조선을 약탈하다
5월	순천부	66척	아군이 추적해 배1척을 포획하고 13명을 살해
6월	합포・고성・회원・장흥부	20척	
11월	동래향	?	

'13세기의 왜구'와 '경인년의 왜구'의 규모는 단순 비교하더라도 2척과 100여척, 참수된 왜구의 숫자는 30명과 300명, 그리고 침구 빈도는 많아야 (2회/년)에 비해 (5회/년)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1351년) 8월에는 130척의 선단으로 전국의 조운선이 모여드는 강화도 부근에 위치한 紫燕島와 三木島까지 침구[19]하고 있음에도 고려 조정은 이에 항의하는 금왜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별고에서 그 이유로 "그것은 아마도 몽고의 일본 침공을 계기로 하여 일본과 고려 사이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元)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원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일본에 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주저한 것일 것이다."[20]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왜구로 인한 피해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달했던 것과 공민왕 대에 자주 독립 노선에 입각한 대원 외교 정책을 추진

19)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3년 秋8월 丙戌條.
20) 이영, 「庚寅年以降の倭寇と內亂期の日本社會」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했음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제기한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경인년(충정왕 2) 당시 고려가 처한 정치・외교・군사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85년간의 '왜구의 공백기'[21]를 깨고 침구를 재개한 경인년 2월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고려사』에 전해지고 있다.

> 1. 임진일, 持平 崔龍生을 경상도 안렴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최용생은 內侍들이 원나라의 총애를 믿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을 증오했다. 그래서 그 악행을 폭로하는 방을 써 붙여서 사람들에게 광고하였더니 御香使 宦者 朱完之 帖木兒가 왕과 공주에게 최용생을 고소하였으므로 최용생을 파면하고 김유겸을 안렴사로 임명하였다.[22]

경상도 안렴사 최용생이 牧民官으로서 취한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충정왕은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파면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해 10월에 원나라 조정은 江陵大君 祺를 국왕으로 책봉하고 斷事官 完者不花를 파견해 모든 창고와 궁실들을 봉인하고 國璽를 회수해가지고 돌아갔고, 왕은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에 가있다가 독살당하고 말았다.[23] 이처럼 당시 원나라는 고려 국왕의 책봉과 양위는 물론 심지어 독살까지도 자행할 정도로 고려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충정왕 대의 조정이 왜구에 대하여 능동적・자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뒤를 이어 즉위한 공민왕은 어떠했을까? 즉위 당시의 敎書에서 공민왕은 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21) 이영, 「倭寇の空白期」, 전게 주(20)연구서 참조.
22)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2년 2월 임진일조.
23)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3년 겨울 10월 임오일조.

2. 왜적이 변방 지역을 침노하여 백성을 살육하고 주택에 방화하며 回漕船을 약탈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방어에서 규율이 문란하여 저장과 준비가 전혀 없는 데 기인한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왕에게 제의할 수 있다.[24]

즉위 당시의 공민왕은 적극적으로 왜구에 대처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공민왕의 왕권 역시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왜구를 포함한 공민왕대의 국내외 주요 정치·외교·군사적인 사건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공민왕 대의 주요 정치·외교·군사적 사건

연 도	주 요 사 건
원년(1352)	趙日新의 반역사건
3년(1354)	원 조정이 남방의 반란 세력 토벌을 위해 고려에 정예부대의 파견을 요청
4년(1355)	**왜구, 조운선 200여척을 약탈**
5년(1356)	기철 일당을 숙청(4월), 쌍성 수복 작전의 전개(4월), 정동행성을 철폐(4월), 지정 연호의 사용 중지(6월), 원이 80만 대군으로 침공 위협(6월), 쌍성 탈환(7월), 총동원령(제주도인·화척·재인까지 포함, 9월), 제주도 반란(10월)
6년(1357)	채하중과 전찬의 반역 도모(6월)
7년(1358)	왜구로 인해 수도가 계엄 상태(5월), 장사성의 사자 파견(7월)
8년(1359)	홍두적 3천명 침구(11월), 4만명 침구(12월)
9년(1360)	홍두적 2만명을 살해(2월)
10년(1361)	홍두적 10만명의 침공(10월), 국왕이 남쪽으로 피난(11월), 개경 함락(11월)
11년(1362)	개경 수복, 10만 홍두적을 살해(1월), 납합출의 수 만 병력의 침공(7월), 제주 목자의 반란(8월), 원이 덕흥왕을 국왕으로 옹립했다는 정보가 전해짐(12월)
12년(1363)	국왕의 환도(2월), 김용의 공민왕 암살 기도 사건(3월), 왜적의 선박 213척 교동 침구(4월), 원 조정이 덕흥군을 고려로 호송(5월)
13년(1364)	원나라 군사 1만명이 의주를 포위(1월), 여진족의 침구(2월), 왜적 3천명을 살해(5월), 방국진이 사자 파견(6월), 원 조정이 공민왕을 복위시킴(9월)
14년(1365)	**왜적이 창릉에 들어와 세조의 초상을 약탈(3월)**
15년(1366)	제주 토벌 작전이 실패(10월)
16년(1367)	원나라가 왜적이 고려를 경유해 원으로 오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5월)
17년(1368)	김일 일행이 귀국(1월), 일본이 사자 파견(7월), 대마도 만호가 사자를 파견(7월), 강구사 이하생을 대마도에 파견(7월), 원의 황제, 황후, 황태자가 상도(上

24)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원년 2월 병자일조.

	都)로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짐(9월), 대마도 만호 숭종경(崇宗慶)이 사자를 파견해 입조, 숭종경에게 쌀 1천석을 하사(11월)
18년(1369)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고려에 파견(4월), 지정 연호의 사용을 중지(5월), 거제 남해현의 귀화 왜인들이 배반해 귀국(7월), 아주에서 왜적의 배3척을 포획(11월), 왜적이 영주·온수·예산·면주의 양곡 운송선을 약탈(11월)

* 위 내용은『고려사』世家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공민왕 대는 한국 역사상, 손꼽을 정도의 국난의 시대로, 거의 매년 국가와 왕조 사직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민왕 대에는 원나라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공민왕이 옛 영토 회복 정책을 추진했고, 그러자 원과 결탁한 내부 세력이 반란을 도모해 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다양한 혼란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내부적으로는 조일신의 반역, 친원파 기씨 일족의 반역과 토벌, 채하중의 반역, 공민왕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 그리고 제주도 목자들의 반란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홍두적의 수만에서 20만명에 이르는 대 부대를 위시해 나하추의 수 만명의 군대와 여진족의 침구가 이어지면서 국왕이 南遷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 홍건적의 난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는 원나라 조정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瀋陽에 있던 덕흥왕을 즉위시켜 1만명의 군사를 딸려서 고려로 보내는 등,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금왜사절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단지 왕권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이처럼 過度한 군사·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당시 왜구가 초래했던 충격과 공포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표 3>의 사례 이외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3. 원년(1352) 3월 기미일. 왜구의 침공으로 인해 "부녀자들이 가두에 몰려 나와서 통곡하고 개성이 크게 놀랐다."고 하였다.[25]

4. 1355년 여름 4월 신사일. 왜적이 전라도의 조운선 200여척을 약탈하였다.[26]
5. 1357년 여름 4월 무자일. 왜적이 개경의 바로 코앞에 위치한 교동도에 침입해 개경이 계엄 중이었다.[27]
6. 1357년 9월 무술일. 왜적이 승천부 홍천사에 들어와 충선왕과 한국공주의 초상화를 약탈해갔다.[28]
7. 1358년 3월 기유일. 왜적이 각산 방어소에 침입해 배 300여척에 방화했다.[29]
8. 1358년 가을 7월 임술일. 왜적의 방해로 수상 운수가 통하지 않았다.[30]
9. 1360년 윤5월 초하루 병진일. 왜적이 강화에 침입해 쌀 4만 여석을 약탈했다.[31]
10. 1363년 4월 기미일. 왜적의 선박 213척이 교동도에 정박해 수도가 계엄 상태에 들어갔다.[32]
11. 1364년 5월. 경상도 도순문사 김속명이 왜적 3천을 진해에서 쳐서 대파하였다.[33]
12. 1365년 3월 무진일. 왜적이 창릉에 들어와 태조 왕건의 父인 세조의 초상화를 약탈해갔다.[34]

"개성이 크게 놀랐다." "수상 운수가 통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왜구가 고려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피해를 끼쳤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왜구의 침구는 수십만 홍두적의 침공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큰 충격과 공포를 초래했다. 특히 <사료 6>과 <사료 12>

25) 『고려사』 권38, 공민왕 원년 3월 기미일조.
26) 『고려사』 권38, 공민왕 4년 여름 4월 신사일조.
27) 『고려사』 권39, 공민왕 6년 여름 4월 무자일조.
28) 『고려사』 권39, 공민왕 6년 9월 무술일조.
29) 『고려사』 권39, 공민왕 7년 3월 기유일조.
30) 『고려사』 권39, 공민왕 7년 가을 7월 임술일조.
31) 『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 윤5월 초하루 병진일조.
32) 『고려사』 권40, 공민왕 여름 4월 기미일조.
33)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5월조.
34) 『고려사』 권40, 공민왕 14년 3월 기사일조.

의 침구는 고려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지방의 조세 운송을 해상 수송에 의지하고 있었던 고려는, 북방의 대규모 군사침공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중남부 지방에서 운반해오는 물자 및 인원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였는데, 왜구가 수상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사료 8) 긴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쪽에서 가해지는 정치・군사・외교적인 위협이 클 때일수록, 남쪽 지방으로부터의 물자 수송은 더욱 긴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었고 따라서 왜구가 고려 사회에 안겨준 물질적・정신적인 타격은 더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침구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금왜사절을 파견해 항의하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서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더욱이 '13세기의 왜구'의 경우, 고려는 즉각 금왜사절을 파견해 일시적이나마 그 효과를 보았던 선례도 있는 것이다.[35] 설사 사절 파견이 당장 왜구를 완전히 금압할 수 없다할지라도 최소한 침구의 원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 적절한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고려 조정이 일본과의 외교 행위에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도 아니었다. 그것은 <표 3>에서 당시 원나라에 대한 반란 세력인 張士誠・丁文彬・方國珍・李右丞・朱平章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36] 이렇게 볼 때,

35) "급제 박인을 예빙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이 때에 왜적이 주현을 침략하므로 국가에서 이를 걱정해 박인에게 공문을 주어 보내어 대대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더니 일본에서 침략을 일삼던 왜적을 찾아내어 죽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침략 행위가 좀 잠잠해졌다."『고려사』 권22, 세가22 원종 14년 12월 을해조.

36) 일본에 김용과 김일 일행을 파견하기 전까지 고려 조정은 다음과 같이 원나라 지방 세력의 사절이 왕래하였다. 장사성 11회(공민왕 8년 4월과 7월, 9년 3월, 10년 3월, 10년 7월, 11년 7월, 12년 4월, 13년 4월, 13년 7월, 14년 4월, 14년 10월) 정문빈 2회(공민왕 8년 4월, 7월) 방국진 3회(공민왕 8년 8

고려 조정이 17년 동안이나 금왜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확고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민왕 당시의 대원 외교를 살펴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고려는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의 존재를 대원(對元) 외교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왜구의 빈번한 침공 사실과 그로 인해 고려가 받은 피해에 관해서는 원나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숨겨왔던 것 같다. 그것은 공민왕 5년(1356) 겨울 10월 무오일에 원나라에 보낸 표문(表文)에 있는 다음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A. 세조가 일본 정벌 당시에 설치한 만호는 중군・우군 및 좌군만호뿐이었는데 그 후에 巡軍・合浦・全羅・耽羅・西京 등의 만호부를 증설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거느리는 군사도 없으면서 공연히 金符만 차고 다니며 宣命을 자랑하며 백성을 꾀어 모으며 허망하게 戶計로 자칭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주와 현에 압력을 가하여 관리도 파견하지 못하게 하니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이다. 만일 허락한다면 세조 황제가 정한 옛 제도에 따라서 세 곳의 만호만을 그대로 두어 일본에 대한 수비를 하게끔 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증설한 다섯 萬戶府와 都鎭撫司를 모두 폐지 해주기 바란다.

(중략)

B. 우리나라는 왜적이 침구해 노략질하기 시작한 이후, 그에 대한 방비를 거의 한 순간이라도 늦출 수 없다. 樞密院에서 파견하는 體覆使를 폐지하여야 하며 宣徽院・資政院・將作院・大府監・利用監・太僕寺 등 여러 기관이 보내는 사람을 일체 금지하고 필요한 方物은 그 수량을 명확하게 결정해 우리나라가 스스로 바치게 함으로써 통로 연변의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시오.[37]

월, 13년 6월, 14년 8월) 이우승 1회(공민왕 9년 7월) 주평장 1회(공민왕 13년 4월). 이 가운데에 공민왕이 회신을 써서 보낸 것이 사료에 확인되는 것이 정문빈(공민왕 8년 7월)이다. 그러나 장사성이 모두 11차례의 사절을 파견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고려 측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사료 13>은 전반부(A)에서, 원 세조(쿠빌라이)의 일본 침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후반부(B)에 막연히 '왜적이 침구해 노략질하기 시작한 이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B에 언급한 「왜적」이 '13세기의 왜구'인지 아니면 '경인년 이후의 왜구'의 침공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왜구'의 침공 사실을 구체적으로 원에 알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막연히 일본의 침공 위협을 빌미로 해서 원의 수탈을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왜구가 최초로 중국을 침구한 것이 1358년[38]임을 생각하면 이 표문이 작성된 1356년 당시의 원 조정으로서는 '왜구'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생소한 것이었을 것이다.

고려는 오히려 교동도와 강화도・승천부 흥천사(개풍군) 등 수도권 海域에서의 왜구들의 약탈에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63년 여름 4월 원나라 어사대에 제출한 百官耆老書에 "왜구와 싸울 때마다 물리쳤다."[39]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왜구의 침구 사실을 무엇 때문에 원에 숨기려 하였으며 또 그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고 하였을까? 아마도 고려 조정은 이 사실이 원에 알려지면, 이를 고려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군사・정치 공세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될지도 모른다, 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앞의 <사료 13>의 A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즉, 고려는 국내에 설치되었던 원의 군사기구가 끼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 중군・우군・좌군 만호를 제외한 기타 군사기구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쌍성이나 제주 등, 옛 영토의 회복을 위해 원과의 충돌도 不辭했던[40] 고려 조정이 올린 상소의 본래 의도는,

37) 전게 주(37) 사료 참조.
38) 『元史』 권46, 順帝 23년 8월 정유삭조.
39) 『고려사』 권40, 공민왕 12년 여름 4월 갑인일조. 이 '백관기로서' 이외 달리 고려가 원나라에 대하여 '경인년 이후의 왜구' 침구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원과의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원의 군사적 압력에 내응할 위험성을 지닌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에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고려가 처한 왜구의 심각성을 원이 알게 된다면, 고려가 폐지하고자 하는 다섯 만호부와 도진무사를 오히려 존립 내지는 강화시켜야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시 고려는 원과의 정면충돌은 가능한 회피하면서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정면충돌도 꺼리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실제로 고려가 쌍성지역의 회복에 착수하자 1356년 6월에 원나라는 고려 사신을 요양성에 가두고 80만 병력을 동원에 고려를 토벌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41] 이에 고려는 제주도 사람과 화척・재인까지 서북 국경지역에 총동원하는 체제로 맞섰던 것이다.[42] 공민왕의 고지(故地) 회복 정책으로 원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가 알면 군사・외교적 약점이 될 수 있는 왜구의 침구 사실을 고려는 적극적으로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인 이유이외에 정치적인 원인도 있었다. 그것은 소위 瀋陽王 德興君의 존재였다. 즉, 왜구의 빈번한 침구에 거의 속수무책 상태였던 고려의 실상이 원 조정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곧 공민왕의 무능함으로 평가되고, 이는 과거에 자신이 충정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던 것처럼, 원이 자신과 덕흥군을 교체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의 압력에 호응하는 형태로 내부에서 야기될 반역 음모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의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百官耆老書의 "싸울 때마다 물리쳤다."[43]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고려는 1362년 봄 정월에 홍두적의 20만 대군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

40)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9월 경진일조.
41)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6월 을해일조.
42) 전게 주(41) 사료 참조.
43) 전게 주(39) 사료 참조.

들로부터 노획한 원나라 황제의 옥새를[44] 비롯한 원에 보물들을 돌려주는 큰 공을 세웠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조정은 같은 해 12월에 덕흥군을 고려의 새로운 국왕으로 세웠다. 이 정보가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곧바로 이러한 외부 정세와 연계한 내부의 배신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

이처럼 덕흥군의 옹립과 고려로의 귀국을 둘러싼 원과의 군사・정치적 긴장 상태는, 1364년 9월에 원나라 황제가 공민왕을 복위시키고[47] 그 해 10월에 음모의 배후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최유를 체포해 고려로 압송함으로써[48] 일단락된다. 고려 조정의 덕흥군 압송 요구를 원이 유예시킴으로써[49] 재연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당시 원나라는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서,[50] 더 이상 고려의 내정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 1367년 2월에는 마침내 원나라 황제가 제주도로 피난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려 조정까지 전해질 정도였다.[51] 어쨌든 원나라와 군사적 충돌까지 각오하고 있었던 고려는, 왜구의 빈번한 침구 사실은 대원관계에 있어서 군사・정치적으로 중요한 약점이 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고려가 금왜 사절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원의 멸망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다시피 한 1366년 8월의 일이었다.[52]

---

44)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정월 갑자일조.
45)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6월 병진일조.
46)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12월 계유일조.
47)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9월 기사일조.
48) 『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겨울 10월 임인일조.
49) 『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봄 정월 무진일조.
50) "정월에 명나라의 군대는 寶慶路를 점령했는데, 이를 지켜야 할 장군은 도망했고, 또 僞漢의 장군 熊天瑞는 공주(贛州 : 강서성)와 韶州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南雄은 명나라에 항복했다."(『元史』 권46, 본기 46, 順帝 9, 25년 정월 기사조)라는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반란 세력들에 의해 수도를 정복당하고 있었던 원나라의 쇠망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였다.
51) 『고려사』 권41, 공민왕 16년 2월 계해일조.

3) 공민왕의 對日 정책

그러면 이번에는 금왜사절의 파견을 지연해왔던 이유를 대일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원의 멸망이 결정적인 사실이 될 때까지 금왜사절의 파견을 미루어 왔던 고려 조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공민왕대에 설장수가 왜구 대책으로 건의한 상소문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왜적들은) 성을 공격하고 토지를 약탈해 長久之策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약탈에만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이 없으면 기필코 퇴각할 것입니다."[53]라고 했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약탈만 하고 돌아가는 왜구보다도 북쪽 국경 문제가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금왜사절을 파견하는 정도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절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왜구가 대규모로 빈번하게 침구하는 배경에 대한 정보도 없는 가운데에, (어쩌면 일본의 국가권력이 보다 더 큰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왜구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사절을 파견하고 또 답례사절이 고려를 왕래하게 되면, 북방 국경지대로부터의 대규모 침공 등, 고려의 군사・정치적 취약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외국의 使者가 자국의 정보를 염탐할 위험성에 대해서, 일본・중국・고려 삼국 조정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었음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사례를 보자. 다음 <사료 14>는, 소위 '도이(刀伊)' 즉 여진족으로 구성된 해적의 침구(1019년) 이후, 대마도에 와서 체재하고 있던 고려 사자 일행을, 우선 다자이후(大宰府)로 데려와서 거

52) 김용 일행이 일본의 이즈모(出雲) 지방에 도착한 것은 貞治 5년(1366) 9월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려를 출발한 것은 적어도 9월 이전의 일로 생각된다.

53) 『고려사』 권112, 열전 25, 설손 전.

기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식량 등을 지급한 뒤 귀국시킬 것을 결정한 '진노사다메(陣定)'의 결론을 전해들은, 前 다이나곤(大納言) 미나모토 도시가타(源俊賢)가 후지와라 사네스케(藤原實資)에게 보낸 편지이다.

> 14.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섬에 와서 열흘이나 한 달 동안 체재한다면 국가의 강하고 약함을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한지 부족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빨리 돌려보낼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54]

여기서 미나모토 도시가타는 고려 사신들이 일본의 국정을 파악하고 방어가 약한 곳을 알게 될까봐 경계하며, 그들을 다자이후로 데려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곧바로 돌려보낼 것을 건의하고 있다. 중국의 예를 보자. 宋 靖康 원년(1126)에 侍御史 胡舜陟의 「論高麗人使所過州縣之擾」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15. (前略)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려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물건은 글안・금(金)과 나누고, 우리나라의 산천(山川)의 형세와 군사의 많고 적음, 財用의 허실을 염탐해 이를 글안과 금에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려 사신 일행의) 入朝는 단지 비용만 막대한 것이 아니라, 실로 호랑이를 키워서 (장래의) 환난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고려 사신들이 明州에 도착하면 명주로 하여금 (고려의) 表文만 조정에 바치게 하고, 사신은 거기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55] (後略)

고려 사신이 송의 내정에 대해 염탐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사신들의 첩보활동 가능성에 대해 송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이번에는 조선의 예를 보자. 태종 13년(1413)에 명나라 수군이 일본을 토벌하겠다고 하는

---

54) 「數多者, 著小嶋送旬月者, 可量國强弱(弱), 可知衣食乏, 以早返爲先」 『小右記』 寬仁 3년 9월 23일조.

55) 『歷代名臣奏議346夷狄』. 모리 가쓰미(森克己), 「日宋麗連鎖關係の展開」 『續日宋貿易の硏究』, 國書刊行會, 1975의 계시(啓示)에 의함.

황제의 宣諭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태종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16. (前略) 또 왜인이 만약 이 變을 안다면 크게 불가하다. 지금 서울에 와있는 倭使의 族類가 우리나라에 퍼져있어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알아가지고 통지하게 되면 뒷날 중국에서 반드시 말이 새나간 이유를 따질 것이다. 征倭를 위한 거사는 반드시 5·6월에 있을 것이니, 왜사를 拘留해 2·3개월만 지난다면 누가 다시 이를 말하겠는가?[56]

이처럼 동양 삼국이 모두 외국 사신이 내왕할 때에 자국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57] 따라서 홍건적·나하추·여진족의 침입과 제주도의 반란 그리고 원의 군사·정치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던 시기에, 일본이 파견한 사절이 고려의 대일 창구였던 東南海都部署나 수도 개성까지 왔다면 이런 정보가 일본 측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1368년 봄 정월, 김용 일행에 이어 두 번째로 파견한 금왜 사절인 김일 일행이 귀국할 때에 일본은 승려 범탕과 범류를 함께 파견하고 있으며[58] 또 같은 해 가을 7월에도 사자를 파견하고 있고,[59] 이어서 대마도 만호(소 쓰네시게, 宗經茂)가 같은 달 7월[60]과 11월에 고려

56) 『태종실록』 태종 13년 3월 20일조.
57) 예를 들면, 몽고의 사신 조양필은 일본에 파견되어 교토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자이후에서 체재하다가 돌아오고 말았고(『고려사』 권27, 세가 27, 원종 14년 3월 계유조), 우왕 원년(1375) 2월에 일본에 금왜 사절로 파견된 나흥유는, 일본에 건너가자마자 첩자로 오해받아 구속당하기도 했다(『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 원년 2월조. 『고려사』 권114, 열전 27, 나흥유 전).
58)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정월 무자일조.
59)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가을 7월 을해일조.
60)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가을 7월 기묘일조.

에 사자를 보내는 등,[61] 1년 동안에 모두 4차례의 사절이 일본과 왜구의 주요 근거지인 대마도에서 파견되어 왔던 것이다. 이들 사자가 수도 개성까지 왔는지 아니면 東南海都部署(당시는 금주에 소재)[62]까지만 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재하면서 고려 관리와 접촉하는 동안 고려 국내외 정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렇다면 후술하는 <사료 18>의 "ⓒ 만약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체포한다면 아마도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에 어긋날 것이다."고 한 것처럼 고려 조정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약점만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까지 약탈과 납치만 하고 돌아갔던 왜구가, 고려 내부의 약점을 알게 된다면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 본격적으로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고려의 지배층들은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제시한 <사료 13>의 "우리나라는 왜적이 침구해 노략질하기 시작한 이후, 그에 대한 방비를 거의 한 순간이라도 늦출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몽고와 고려의 일본 침공 이후에 가마쿠라 막부가,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당시 기나이(畿內) 지방 일대의 아쿠토(惡党)들을 동원하여 고려를 침공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사실[63]로 볼 때 고려의 우려는 결코 杞憂라고는 할 수 없었다. '13세기의

61)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11월 병오일조.

62) 동남해도부서는 최초 경주에 설치되었는데, 이후에 금주(김해)로 이전과 경주로의 복귀를 반복한 끝에, 고려 말기 단계에는 경주로 낙착되었다. 변태섭, 「고려안찰사고」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63) 건치(建治, 1275~77)와 홍안(弘安, 1278~87)의 고려출병계획을 살펴보면, 오타부미(太田文 : 토지등록대장)에 입각하여 서쪽 지방(西國)의 장원과 공령(莊鄕) 마다 선박, 무기, 인부역(人夫役)을 부과하고 무용이 뛰어난 자를 소령의 면적(所領額)에 따라서 모두 다 동원한다고 하는 철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나이(畿內) 지방의 죄인(流人)과 아쿠토(惡黨)을 파병하고 또 은상(恩賞)을 기대하는 규슈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주민들에게 군사

왜구'가 단순한 해적행위였음에 반해, '경인년 이후의 왜구'는 두 차례에 걸친 몽고·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공 이후에 전개된 침구였기에, 더욱이 그 규모가 '13세기의 왜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고 또 빈번했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가 당시 우려하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은 북(홍건적·나하추·여진족·원나라)과 남(일본)의 양쪽에서부터,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동시에 대규모 군사적 침공을 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 왜구의 심각한 침구를 당하면서도 17년 가까이 對日使節의 파견을 자제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당시 고려는 남과 북, 안팎에서부터 왕조 사직이 흔들리고 국토를 유린당해 수많은 장병과 백성들이 살상당하는 심각한 군사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고려 조정은, 원에 대해서는 왜구의 침구를, 일본에 대해서는 북쪽 국경의 동요와 이와 연계한 내부의 혼란을 숨기기 위해 금왜사절의 파견을 자제하는 외교 정책을 17년 가까이 굳게 지켜왔던 것이다.

3. 금왜사절 파견의 實像과 意義

1) 공민왕 15년 禁倭 사절의 의문점

공민왕 15년(1366, 貞治 5) 8월, 금왜사절로 파견된 김용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것은 공민왕 15년(1366) 9월이다.[64] 고려는 이어서 불과 3개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軍事催促)하는 등, 일본 역사에서 예전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사태였다(海津一朗, 『蒙古襲來 對外戰爭の社會史』, 吉川弘文館, 1998).

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65]에 또 김일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사절을 파견하였다. 김일은 그 다음 해(1367년) 2월 27일, 일본에 도착해[66] 4월 초순에 교토에 들어오고 있다.[67]

그런데 당시의 고려의 사절단 파견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고려사』의 공민왕 15년(1366) 기록에는, 최초로 금왜사절 김용 일행이 8월 무렵에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고 같은 해 11월에 두 번째로 출발한 김일 일행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이미 고찰하였듯이, 김용 일행은 고려 조정으로서는 17년 동안이나 인내해왔던 끝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이었다. 또한 나카무라 에이코의 연구에 따르면, 김용 일행은 원나라 황제의 뜻을 담은 첩장을 일본 조정에 전달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68] 그렇다면 김용 일행의 파견은 고려 조정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외교 행위였으며 이 점에서 보더라도 뒤에 파견된 김일 일행보다도 그 의미가 더 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려사』에 김용의 파견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반면에 김일 일행에 관해서 기록되어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1년 뒤인 우왕 3년(1377) 6월조에 안길상을 금왜사절로 파견할 당시, 지참한 書狀속에 "병오년(공민왕 15년)에 김용

64) 『太平記』 권39, 「高麗人來朝の事」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これによって高麗國の王より. 元朝皇帝の勅宣を受けて. 牒使十七人わが國に來朝す. この使ひ異國の至正二十三年八月十三日に高麗を立って. 日本國貞治五年九月二十三日出雲に着岸す」 여기서 至正 23년(1363)은 至正 26년(1366)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즉 당시 김용 일행은 1366년 8월 13일에 고려를 출발해 9월 23일에 이즈모 지방에 도착한 것이다.

65) 『高麗史』 권41, 공민왕 15년 11월조.

66) 後光嚴院, 『善隣國寶記・新訂續善隣國寶記』, 貞治 6년 丁未條, 集英社, 1995.

67) 『師守記』, 貞治 6년 4월 6일조.

68) 전게 주(2) 나카무라 에이코 논문 참조.

등을 파견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69]을 보면, 『고려사』를 편찬할 당시의 기록상의 누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1366년 8월에 김용 일행이 사자로 파견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11월에 왜 또 김일 일행을 파견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는 "왜연이어 파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쩌면 김용 일행은 원나라 정동행중서성의 牒狀과 信物을 가지고 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는데 그들의 귀국이 너무 지체되었기에 －이즈모(出雲) 지방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김일 일행은 다시금 고려의 국서를 가져가기 위한 사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70]

그렇지만 당시 고려와 일본 양국 간의 교통 여건이나 외교상의 관행[71] 등을 고려할 때 외교 사절단이 불과 3~4개월 동안에, 즉 김일 일행이 11월에 파견되기 전에 김용 일행이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용 일행을 파견하였지만 무사히 일본에 상륙해 일본 조정에 첩장을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고려해, 같은 임무를 띤 사절단을 다시 파견한 것이라고.

세 번째 의문은 이 당시의 금왜 요구 사절 파견에 원나라가 개입하였는지 여부(與否)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카무라 에이코는 또 다음

69) 『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 3년 6월 을묘일조.

70) 전게 주(2) 나카무라 에이코 논문 참조.

71) 고려 측에서 가지고 간 국서에 대하여 일본 조정은 우선 선례를 조사해보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답신을 쓸 것인지 여부와 누가 쓸 것인지 또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려 문종 32년(1078) 당시 고려 측의 의사 파견 요청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국 간의 외교 교섭에 대해 고찰한 田島公, 「高麗との關係, 第6章 海外との交涉」, 橋本義彦 編, 『古文書の語る日本史』 2, 平安, 筑摩書房, 1991을 참조.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공민왕은 이에 또 다른 외교정책에 입각해 이(당시 고려가 처한) 궁지를 벗어나고자 한 것일까? 사신을 일본에 파견해 禁賊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중략) (이 부분의 서술은 <사료 18>을 참조) 또 여기서 당시 원나라와 고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원의 첩장으로 고려가 왜구금압을 요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려사』의 공민왕 세가에 의하면 그 다음 해인 공민왕 16년 5월 30일 원의 중서성 직성사인 걸철이 보낸 첩장에, '倭賊入寇, 必經高麗, 宜出兵捕之'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來牒은 전년도의 첩장을 가지고 온 사신의 소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출병해 왜구토벌을 행할 것을 고려에 명령한 것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전년도의 정동행성의 첩장의 의미는 원나라 스스로도 사실상 왜구의 금압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시급한 요구와 겹쳐져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원 세조 이래의 전통적인 대일본 교섭책에 입각해 고려는 그 첩장을 전달해야하는 임무를 맡았고 동시에 자국의 시급한 사정에도 이용한 것일 것이다."[72]

나카무라 주장의 요점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김용 일행은 원나라의 정동행중서성의 첩장과 신물을 가지고 간 사절이었다.
㉡ 김일 일행은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한 사절이었다.
㉢ 김용 일행이 파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일 일행이 파견된 것은 김용의 귀국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이었다.
㉣ 당시의 원나라와 고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원의 첩장으로 고려가 금왜를 요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 전년도(1365년)에 원나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첩장이 고려로 전해졌다.

우선 ㉠과 ㉡ 즉, 나카무라씨가 김용 일행과 김일 일행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필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72) 전게 주(2) 나카무라 에이코 논문 참조.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김용 일행의 귀국이 너무 지체되었다고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의 <표 5>의 ③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대마도에 파견된 사절이 귀국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약 5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표 5〉 고려의 對日 사신 파견

	사 신	파견 연월	귀국 연월	기 간	직 책	행선지	비 고
①	김 용	공민왕 15년(1366) 8월	공민왕 17년(1368) 정월	약 1년 6개월	만호좌우위보승중랑장	교토	원나라 첩장(?)을 전달
②	김 일	공민왕 15년(1366) 11월	공민왕 17년(1368) 정월	약 1년 3개월	검교중랑장	교토	승려 범탕과 범류의 파견 답례
③	이하생	공민왕 17년(1368) 7월	공민왕 17년(1368) 11월	약 5개월	강구사	대마도	대마도 만호 송종경이 사자를 파견
④	나흥유	우왕 원년(1375) 2월	우왕 2년(1376) 10월	약 1년 9개월	판전객시사	대재부 교토	고려 출신 승려 양유의 파견, 승려 주좌의 편지
⑤	안길상	우왕 3년(1377) 6월	동6년(1380) 11월, 일본에서 사망	약 3년 6개월	판전객시사	대재부	답례사 승려 신홍을 파견, 今川了俊의 서한 전달
⑥	정몽주	우왕 3년(1377) 9월	우왕 4년(1378) 7월	약 11개월	전대사성	대재부	승려 신홍과 군사 69명과 주맹인을 고려에 파견
⑦	한국주	우왕 4년(1378) 10월	우왕 5년(1379) 5월	약 8개월	판도판서	대재부	大內義弘, 朴居士와 군사 186명을 고려 파견
	이자용	우왕 4년(1378) 10월	우왕 5년(1379) 7월	약 10개월	전사재령	대재부	今川了俊, 포로 230명을 고려로 송환
⑧	윤사충	우왕 5년(1379) 5월	불명	불명	검교예의판서	대재부 교토	大內義弘報에 대한 聘使로 파견(?)
⑨	방지용	불명	우왕 6년(1380) 11월	불명	중랑장	대재부	探題將軍五郎兵衛 등 사신 내왕, 토산물을 바침

⑩	송문중	공양왕 3년(1391) 10월	불명	불명	판종부시사	대재부	동년 8월의 今川了俊의 사자 파견에 대한 답례사

* <표 5>는 『고려사』의 기록에 의한 것임.

즉, 행선지에 따라 대마도(약 5개월)·대재부(8개월~11개월)·교토(1년 3개월~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73]

더욱이 <사료 18>에서 보듯이, 김용 일행이 전달한 첩장은 교토에 가서 'ⓔ 國主를 알현하고 일본국의 답신을 받을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할 당시부터 3~4개월이라는 기간은 당시의 외교관례나 일본 국내의 혼란한 정세(내란)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에서 나카무라가 추측한 것과는 달리, 사절 파견의 전년도인 1365년에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 금왜를 취지로 하는 첩장을 보내었다고 하는 사료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외교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기록에서 빠져서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1365)는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사절이 12차례나 왕래한 기사가 남아있는데,[74] 그 어디에도 금왜 요구 첩장에 관한 내용은 보이

73) ⑤의 안길상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병이나 이를 치유하느라고 약 3년 6개월간 체재했지만 결국 병사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의 경우는 적당한 체재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74) 그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밀직부사 김유를 원나라에 보내어 덕흥군을 잡아 보낼 것을 청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봄 정월 무진일조).
② 황원군 최백과 좌부대언 김정을 원나라에 보내어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2월 계축일조).
③ 밀직부사 이자송을 요양에 보내어 은과 안장을 흑려에게 선사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2월 병진일조).
④ 밀직부사 양백언을 원나라에 보내어 공주의 사망을 통보하게 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3월 임술일조).
⑤ 원나라가 이부시랑 왕타례독과 이부주차 호천석을 보내어 왕을 태위로 책봉하고 겸하여 술을 주었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3월 기사일조).

지 않는다. 해가 바뀌어 김용 일행이 파견되는 1366년 8월 이전에도 원과 고려 사이에는 5차례 정도의 사절 왕래가 있었지만[75] 역시 禁倭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약 1세기 전, 원 世祖가 고려에 대해, 일본이 복속하도록 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할 터이니 길 안내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첩장이 전해지자,

---

⑥ 밀직부사 홍사범을 원나라에 보내어 책명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3월 무자일조).

⑦ 감찰대부 전록생과 환자 부원군 방절을 원나라에 보내어 황태자에 예물을 전하게 하고 또 곽확첩목아와 심왕 등에게 선물을 보내었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4월 신축일조).

⑧ 최백 양백언 홍사범 등이 원나라가 어지러워져 길이 막혔으므로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4월 신축일조).

⑨ 원나라 황태자가 첨원 성대용을 보내어 서한을 전하고 왕에게 옷과 술을 주었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9월 을축일조).

⑩ 밀직사 상의 최백을 원나라에 보내어 황태자의 생신을 경축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10월 계해일조).

⑪ 원나라가 대부소감 안승을 보내어 원나라 황태자가 역적 발라첩목아를 토벌 평정하였다는 조서를 전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10월 갑자일조).

⑫ 원나라가 직성사인 아동야해를 보내어 백살리를 태사우승상으로, 곽확첩목아를 태부좌승상으로 임명하였다는 조서를 전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11월 계사일조).

75) 그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사신을 파견하여 황태자가 반란을 평정하고 개선한 것을 축하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봄 3월 경자일조).

② 신년 축하 사절인 부사 임대광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여름 4월 경신일조).

③ 신년 축하사 판 삼사사 전보문이 원나라에서 돌아왔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여름 4월 신미일조).

④ 왕이 전으로 개명하고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어 새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표문을 올렸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8월 임신일조).

⑤ 8월 기묘일. 요양의 평장 고가노가 5색 꿩을 바쳤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8월 기묘일조).

고려 조정이 그 대책에 腐心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76] 비록 공민왕 15년 당시 원의 衰退를 고려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할지라도, 원이 금왜 요구의 첩장을 고려에 보냈다면, 이는 고려로서는 중요한 외교적 事案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김용 일행의 일본 파견에 앞서, 이와 관련해서 원 조정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이 사료로 전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왜구의 빈번한 침구와 이에 대해 무방비에 가까운 대처는, 고려 조정으로서는 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숨기고 싶은 약점이었다. 반대로 원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의 왜구 문제는 고려 조정과 공민왕의 무능함을 지적해 외교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다. 이 점은 명 태조 주원장이 왜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온 사례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77] 명나라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 고려는, 왜구 토벌을 명분으로 명이 침공해 올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했던 것이다.[78] 따라서 원 조정이 고려에 대해 금왜사절을 일본에 파견할 의사가 있었거나 또 그런 지시를 했다면, 1365년부터 66년 9월 사이의 무려 17차례나 되는 양국 간의 사절 왕래에 금왜 요구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1365년 당시 원나라 조정이 금왜 요구 사절의 파견을 고려에 지시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을까? 당시 원나라의 국내 상황을 주요 정치・군사적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원나라는 발라첩목아 일당이 수도를 점거하고[79] 황태자의 모친을 유폐시키고 있었으며,[80] 이에 대

76) 이것에 관해서는 이영, 「元寇と日本・高麗關係」, 전게 주(20)연구서 참조.
77) 기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세종 25년(1443)・26년・27년의 3차례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有井智德, 「十四～五世紀の倭寇をめぐる中韓關係」『高麗李朝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85을 참조.
78) 『고려사』 권113, 열전 26, 정지 전.
79) 『원사』 권46, 본기 46, 順帝 9, 25년 3월 경신조.

항하는 황태자와 확곽첩목아는 7월에 발라첩목아을 살해하는 등 兵亂이 일어나고 있었다.[81] 이 틈을 타서 전국에서 다른 반란세력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명나라 군대는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점령당한 수도를 반란군으로부터 회복한 것은 9월의 일이었다.[82] 이 기간 동안에 왜구가 침구하였는지 여부와, 그리고 만약 침구했다면 그 규모와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元史』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365년 당시 원나라 조정은 왜구를, 이러한 내란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으로서는 내부 반란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기에 왜구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또 다른 시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다음의 원의 至正 23년(1363) 8월의 기사를 살펴보자.

17. 倭人寇蓬州. 守將劉★擊敗之. 自十八年以來. 倭人連寇瀕海郡縣. 至是海隅遂安.[83]

즉 지정 18년(1358) 이래로 왜구가 처음 침공해 연이어 원의 연해지방을 침구하고 있었는데, 유★이 1363년 8월에 봉주(산동성)에서 왜인을 격파하자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는 것이다. 왜구가 침공해오지 않았던 기간이 얼마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은 전혀 침구하지 않았든지, 침구했더라도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원이 고려에 왜구를 붙잡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은 나카무라도 지적하였듯이, 왜구가 중국에 대한 침구를 개시한지 9년 뒤, 김

80) 『원사』 권46, 본기 46, 順帝 9, 25년 3월 병인조.
81) 『원사』 권46, 본기 46, 順帝 9, 25년 가을 7월 을유조.
82) 『원사』 권46, 본기 46, 順帝 9, 25년 9월조.
83) 『원사』 권46, 본기 9, 順帝 9, 23년 8월 정유삭조.

용 일행이 파견된 지 약 10개월 뒤인 공민왕 16년(1367) 5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왜구가 원나라로 침구해오는 과정에 고려를 거쳐서 온 것이기에, 고려로 하여금 왜구를 막으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다. 일본에 보낼 원의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임무를 띤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라고 고려에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원 조정으로서는 왜구 문제는 고려가 도중에 차단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나라 조정이 1365년에 금왜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첩장을 고려에 보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원나라의 패색은 이미 짙어져 1367년 2월에 황제가 제주도로 피난을 계획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나라 조정이 왜구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민왕 15년의 금왜 요구 사절의 파견에 원 조정의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고려 조정 단독의 의지에 의한 파견이었다고 봐야 한다.

2) 금왜사절 파견의 실상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김용 일행이 일본에 전한 첩장의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8. ⓐ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征東行中書省은 일본과 본성이 관할하는 고려의 경계가 水路로 서로 접하고 있음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대개 귀국의 표류민을 여러 차례 인도적인 입장에서 호송해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至正 십년 庚寅年부터 많은 해적선이 침구해왔다. 이는 모두 귀국의 영토에서 나와 ⓑ 本省의 合浦 등과 같은 곳에 와 관청을 불 지르고 백성을 괴롭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 그 뒤 십여 년 동안 선박은 바닷길을 항해하지 못하고 변경에 사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이는 귀국의 섬에 사는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탐욕스러운 행동을 일삼아 땅에서는 숨고 바다로 나와 위협하고 약탈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귀국은 땅이 넓어서 어찌 주변 지역의 이런 사정까지 상세하게 알 수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 만약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체포한다면 아마도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에 어긋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국에 문서를 보내어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저기에 명령을 내려서 地面의 바다 섬들을 잘 관리하고 엄격히 침구를 금해 ⓓ 예전처럼 국경을 넘어와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본 성부가 지금 본 관리들을 파견하여 함께 여러 역들을 지나서 마침내 ⓔ 國主를 알현하고 이런 사실들을 아뢰고, 일본국의 답신을 받아 우리나라로 돌아가고자하니 閣下는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 위의 업무를 행하여 반드시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발생하였으니 회답하여 주길 바란다.
> 만호 김을귀, 천호 김용 등 이에 따르다.[84]

이 첩장의 본문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 부분, 즉 원나라 황제의 勅宣을 받아서 정동행중서성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만약 이 당시의 첩장이 나카무라가 추측한 대로 "김용 일행이 파견하기 전해인 1365년도에 원나라가 고려에, 일본 정부의 금왜를 요구하는 취지의 첩장을 전달하였고 또 그 것을 전제로 하여 정동행중서성이 일본에 보낼 첩장을 작성하였다."면 그 첩장의 내용에는 원나라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첩장 안에 왜구의 피해지로 ⓑ 고려의 합포(현재의 마산시)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안 지방, 특히 蓬州 등과 같은 산동성 일대 지방도 피해지방의 예로 거론되었어야 했을 것이다.[85] 그러나 당시의 첩장 본문에는 전혀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

84) 『태평기』 권39, 「高麗人來朝事」

85) 초기에 중국에 침구한 왜구는 그 침구 대상지가 주로 산동성 연해 지방(봉주와 래주 등)이었다. 이는 『명사(明史)』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태

원나라가 왜구 문제를 가지고 고려에 최초로 언급한 것은 앞에서 본 대로, 김용 일행이 파견된 지 약 9개월 뒤인, 1367년 5월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당시 김용 일행이 전한 원나라의 첩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정동행성은, 反元 정책이 실시되던 공민왕 5년(1356) 4월에 폐지되어[86]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김용과 김일이라고 하는 두 사절단의 파견은 원나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87]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라이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정동행중서성(줄여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 2(본고의 <사료 18>)에 '本省所轄高麗地面'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했던 內政 감독기관이다. 그렇지만 고려왕은 정동행성의 장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고려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봐도 좋다."[88]

그렇다면 나카무라도 지적한 바, 요점 ㉡ 즉 "당시의 원나라와 고려

평기』 권39, 「高麗人來朝事」에는 왜구들이 明州와 福州에 침구하였다고 되어있다는데, 이는 그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꼈던 중국의 지방을 의미하는, 어디까지나 작자의 상상에 기인한 것이지 고려의 사절이 전한 첩장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86)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5년 여름 4월 정유일조.

87) 이 사건에 대하여 가와조에 쇼지씨도 "원나라의 이름을 빌린 금적(禁賊)의 요구"라고 하면서도 원나라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전문(全文)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는 원나라의 이름하에 일본에 대하여 왜구의 금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원나라 왕실이 쇠퇴하는 정세 속에서 원나라와 고려의 국교는 반드시 원만하지 않았다. 원나라의 이름을 빌린 금적(禁賊)의 요구가 원나라의 의지가 작용한 원과 고려의 금적(禁賊)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해석 되지만, 특히 고려의 강한 요구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전게 주(8) 가와조에 쇼지 논문 참조.

88)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倭寇と朝鮮」, 전게 주(7) 연구서 참조.

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원의 첩장으로 고려의 왜구금압을 요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한 부분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바로 김용 일행이 일본에 가지고 간 원나라의 첩장은 고려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두 의문도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 김용 일행은 가짜 원나라 첩장을 가지고 고려 내부적으로 본다면 원 나라 황제의 가짜 첩장을 전달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고려사』공민왕 15년의 기록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고, 둘째 김용 일행이 출발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일 일행을 파견한 이유는, 고려 조정이 김용 일행이 전한 첩장은 원나라의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한 의도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김용은 원나라의 첩장을 전달하는 사절이고 김일은 고려 국왕의 첩장을 전달하는 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일본 측에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같은 내용의 첩장을 지닌 사절을 짧은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파견함으로써 강한 임팩트를 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닐까? 그럼으로써 일본 정부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 데에도 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왜사절의 파견은 왜구의 침구를 무려 17년 동안이나 인내한 끝에 파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원의 쇠망이 확실해진 뒤에 추진된 것이었다. 원의 쇠퇴와 새로운 제국 명의 건국이라고 하는 소위 元明의 교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고려 북방 국경 지대의 소강시기에 추진된 사절 파견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신 파견은 무엇보다도 단번에 효과의 極大化를 기해야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고려 단독의 금왜 요구보다는 원을 이용함으로써 무게를 더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 조정이 'ⓐ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라는 거짓 문구를 첩장에 삽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사절 파견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의의

김용과 김일이 전달한 원과 고려의 첩장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 당시의 귀족의 일기를 살펴보자. 1367년(正平 22, 貞治 6, 공민왕 16)의 3월 20일자, 『愚管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 丙申 晴
異國或人云高麗云々使者來朝, 有牒狀云々, 此事宜爲聖斷, 彼牒狀武家可執達然爲公家可 被召之被處樣之間, 可有計沙汰之由, 去十六日武家執奏云々, 被使者経廻天龍寺遷云々.[89]

여기서 "異國或人云高麗云々使者來朝" 즉, "이국(異國) (어떤 사람은 고려라고 한다) 사자가 내조(來朝)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 사신이 몽고 사람인지 고려 사람인지를 놓고 엇갈렸던 것 같다. 또 1367년(正平 22, 貞治 6, 공민왕 16) 3월 24일자 『後愚昧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0. 自去月之比, 蒙古幷高麗使持牒狀, 來朝之由, 有其聞.[90] (下略)

여기서도 "몽고와 고려의 사절이 첩장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몽고와 고려 두 나라에서 사절을 파견한 것, 즉 김용(몽고)·김일(고려)의 사절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타이헤이키』에도

21. これによって高麗國の王より, 元朝皇帝の勅宣をうけて, 牒使十七人わが國に來朝す.

89) 『愚管記』 2(『續史料大成』 2, 臨川書店, 1967, 137쪽).
90) 『後愚昧記』 1(『大日本古記錄』, 岩波書店, 1980, 109쪽).

즉, “고려국왕이 원나라 황제의 칙명을 받고 사신 17명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뒤에 우왕 원년(1375)에 사절로 파견된 나흥유가 전한 첩장을 둘러싸고 대책을 논하고 있었던 1376년(天授 2, 永和 2, 우왕 2) 5월 3일 당시의 『愚管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2. 丙辰 晴. 俊任爲勅使來, 高麗國牒狀豹皮五領人蔘二十斤嗹嚩物目六相副之幷武家狄達之申詞等如此, 何樣可爲沙汰乎者, 余申云, 此事國家重事候, 輒難計申候被行殿上定, 可被決群議乎, 牒狀 之趣 海賊可被禁制之旨也, 大概同貞治之牒狀, 但今度高麗一國牒狀也.[91]

여기서 “첩장의 내용은 해적을 禁制하라고 하는 것으로 대략의 내용은 貞治 당시의 첩장과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고려 한 나라만의 첩장이다.”고 하고 있다. 김용 일행이 가지고 간 첩장을 원나라의 것으로 보이고자 한 고려 조정의 의도가 적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 일본 사회는 김용과 김일 두 사절단의 來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위해서는 금왜사절이 파견되기 약 1세기 전에 있었던, 몽고와 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공이 일본 사회에 미친 충격과 공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이즈 이치로(海津一朗)는, “몽고 침공이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공포를 초래하였으며” “몽고의 일본 침공에 대하여 철저하게 항전한다고 하는 일본의 선택은 열도 사회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깊이와 폭의 변혁을 야기하였다.” “가마쿠라 후기 이후의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국면에 몽고침공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92]고 했다.

몽고와 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공이 초래한 충격과 공포는 남북조 시

91) 『愚管記』 4(『續史料大成』 4, 臨川書店, 1967, 33쪽).
92) 가이즈 이치로(海津一朗), 「元寇, 倭寇, 日本國王」 『日本史講座』 권4, 中世社會の構造, 東京大學出版會, 2004年 9月.

대의 상황을 잘 서술하고 있는 군기모노가타리(軍記物語)인『타이헤이키(太平記)』에서도 확인된다.『타이헤이키(太平記)』는 권39의「高麗人來朝の事(고려인 내조하다)」의 바로 뒤에「太元より日本を攻むる事(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하다)」라는 장을 설정해 몽고와 고려 연합군과의 전투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23. 그 무렵, 文永 2년 8월 13일, 태원(太元) 7만여 척의 병선(兵船)이 동시에 하카타(博多)항구로 몰려들었다. 큰 함선이 선수(船首)와 선미(船尾)를 나란히 하고 선박을 서로 연결해 그 위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판자를 걸쳐서 각 진영 마다 비와 이슬을 막을 수 있도록 유막(油幕)을 펼치고 무기를 늘어놓으니 ⓐ 고토(五島)의 동쪽에서부터 하카타항구에 이르기까지 해상의 사방 300리가 육지로 변하여 마치 蜃氣樓가 만들어내는 城처럼 보였다. (중략)
> てつはう(鐵砲)라고 하여 공같이 생긴 鐵丸이 굴러가는 것이 마치 판자 위를 굴러 내려가는 바퀴와 같고, ⓑ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번개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것을, 한번에 2~3천개 던지니 일본의 병사들이 많이 불타죽고 방어 초소에 불이 붙어서 불을 끌 틈도 없었다. 가미마쓰라(上松浦)・시모마쓰라(下松浦)의 무사들도 이 군대를 보고서는 보통 방법을 써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불과 1,000여명으로 밤에 기습하기로 하였다. 그 투지는 높이 사줄만 하지만 그야말로 구우일모(九牛一毛)요, 대창일립(大倉一粒)의 적은 병력이었기에 적을 2~3만명 죽였지만 마침내 모두 생포되어 밧줄에 꽁꽁 묶이고 손바닥을 밧줄을 연결하는 뱃전에 꽂히고 말았다.
> ⓒ 그런 뒤에는 다시금 싸울 방법도 없어서 치쿠시(筑紫) 九國의 주민들은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시코쿠(四國)・츄고쿠(中國) 지방으로 후퇴했다. ⓓ 일본 전국의 貴賤과 上下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천황은 여러 신사와 사찰에 가서 전력을 기울여 기도를 올렸다.[93]

93)『太平記』권39,「神功皇后, 新羅を攻めたまふ事(신공황후, 신라를 공격하다)」

흥미 본위의 문학작품이 지닌 과장된 표현임을 고려한다하더라도, 有史 이래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규모의 船團과 병력, 그리고 てつはう(鐵砲)라고 하는 신무기의 위력 앞에서 당시 일본인들은 귀천・상하를 막론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도주하였으며, 천황을 비롯한 귀족들은 그저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공포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신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타이헤이키(太平記)』는 바로 다음에 「神功皇后, 新羅を攻めたまふ事(신공황후, 신라를 공격하다)」라는 장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자.

24. 스와(諏訪)・스미요시다이묘진(住吉大明神)을 副將軍과 裨將軍으로 삼고 다른 크고 작은 여러 신들은 누각이 있는 큰 배(樓船) 3,000여척을 나란히 저으면서 고려국으로 몰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오랑캐들은 병선 1만여척을 나누어 타고 싸우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 ⓐ 전투의 승패가 아직 결정되기 전에 신공황후가 우선 干珠를 바다 속으로 던지자 조수가 갑자기 밀려가서 바다가 육지로 변하였다. 三韓의 병사들은 하늘이 우리 편을 들고 있다고 기뻐하여 모두 배에서 내려서서 싸웠다.

이 때 또 황후가 滿珠를 잡아서 던지자 조수가 사방에서 몰려와 수만 명의 오랑캐들이 한 놈도 남지 않고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 ⓑ 이것을 본 삼한 오랑캐의 왕이 스스로 사죄하기 위하여 항복하러 오자 황후는 가지고 있던 활 끝으로 "고려왕은 우리 일본의 개다."라고 石壁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부터 고려는 우리나라에 복종해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다. 옛날에 구레하토리(呉服部)라고 하는 베 짜는 기술자, 王仁이라고 하는 才人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큰 무늬로 된 고라이베리(高麗縁)도 바로 그 증거이다.

황후의 덕을 하늘이 알고 그 덕이 멀리까지 미친 그 옛날에도 異國을 복종시키는 일은 天地神祇의 힘을 빌어서야 비로소 쉽게 정벌할 수 있는 것인데, ⓒ 지금 악행을 일삼는 賊徒들이 원나라와 고려를 침범해 약탈함으로써 牒使를 보내게 하고 또 조공물을 바치게 하는 일은 전대미문의 불가사의한 일이다. ⓓ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일본을 외국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도 모를, 괴상한 일이로다. 그러고 보면 福州의 吳元帥王乙이 우리 조정에 보낸 시에도 이런 내용을 읊고 있다.

일본의 미친 도적들이 浙東의 땅을 어지럽히고,
쇼군은 이 일을 알면서도 안색만 변할 뿐이다.
우리 군대는 해변에 대열을 펼치고 군대가 밝히는 봉화불은 주변을 어둡게 하는구나. 야밤이 되어 적도들을 모두 살해하니 바닷물이 붉도다.
피리 소리에 가사를 생각하고 기울어가는 달을 뒤로 하며 노래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적도들의 해골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는다.
언젠가 반드시 남산의 대나무를 다 베어내어서
지금 전투의 기념으로 삼아 상세하게 옮기고자 하노라.
ⓔ 이 시의 가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일본 전국에 최근 대나무가 모두 말라 죽어가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일의 前兆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는구나.[94]

<사료 24>의 앞부분에서는 일본의 여러 신들을 장군으로 앞세워 삼한을 침공해 삼천(일본) 대 일만 척(고려)이라고 하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신공황후의 신비로운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황당한 神功皇后 전설을 늘어놓으며 '고려왕은 일본의 개'라고 하는 식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김용과 김일 일행이 전달한 첩장으로 놀란 가슴을, 신공황후 전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애써 진정시키려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왜구의 소행이 일본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료 23>과 <사료 24>에 보이는 몽고・고려 연합군 침공 당시의 공포심에 이어서, 고려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 애써 진정하려 하지만, 왜구로 인해 외국이 일본을 침략해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시 표출하고 있으며, 그것은 대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그 전조가 아

94) 전게 주(100) 사료 참조.

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있다. 가이즈 이치로(海津一朗)는 神國思想이 당시 사회에 널리 유포되고 있었던 실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당시는 地上에서의 무사들의 전투를 규정하는 天上의 여러 신들의 전투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어서, 천상의 여러 신들은 자주 異類異形으로 변신해 현실 전투에 참가하고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들의 神戰'라 한다.
>
> 제3차 몽고침공 未遂 사건이라고 불린 에이닌(永仁, 1293~98)의 몽고침공에 대해 가마쿠라(鎌倉)의 민중들은 침략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元寇' 전후, 열도 각지의 莊園公領에서는 쓰루가오카(鶴岡)와 같은 異國降伏을 위한 기도와 제사가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었다."[95]

『타이헤이키』가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바다의 물길을 냈다는 식의 전설과 유사한,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삼한의 군대를 깨트렸다고 하는 허황된 신공황후의 전설을 인용한 것이야 말로,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몽고와 고려 연합군의 침공이 일본 사회에 초래한 공포심이 얼마나 엄청났던 것인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료 18>에서 본 것처럼, 김용이 전달한 소위 원나라의 첩장은 '원나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征東行中書省'이 보낸 것으로 되어있었다. 정동행중서성은 쿠빌라이(원 세조) 당시 일본을 침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기구로,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는 당시 일본의 지배층도 "征東, 동쪽 즉 일본을 정벌 한다."고 하는 字意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정동행중서성이 왜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만약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체포한다면 아마도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에 어긋날 것이다."고 한 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고 해도

95) 전게 주(99) 가이즈 이치로 논문 참조.

좋을 것이다.

즉, 고려는 禁倭 요구가 원나라 황제의 뜻인 것처럼 꾸몄으며, 또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정동행성>이란 기관명을 이용해, 일본이 금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도 不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약 백 년 전의 몽고와 고려 연합군의 침공이 초래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공포심과 위기의식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는 교묘한 심리전술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의 의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단지 일본을 일시적으로 공포에 빠트린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무로마치 막부가 고려의 사절 파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가 사절 파견의 의의로 지적한 것 중에, "막부로 하여금 규슈(九州) 평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것과 "시부카와 요시유키(澁川義行)에서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으로의 규슈탄다이(九州探題)의 改補에, 이 한 사건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한 부분은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필자는 별고에서 '13세기의 왜구'와 '경인년 이후의 왜구' 사이에 약 85년간의 소위 '왜구의 공백기'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리고 그 배경에 몽고・고려 연합군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침공에 대응해 막부가 취한 '해적 단속책'이 존재함을 제시한 바 있다.[96] 이는 외민족의 침입에 거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해적 등 내부의 반 막부 세력을 진압해야 했으며, 이러한 수상 군사력의 장악을 통해 막부의 수군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지금은, <사료 24>의 "ⓓ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일본을 외국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도 모를, 괴상한 일이로다."와 같이, 국내

96) 전게 주(20) 이영 논문 참조.

의 해적(왜구)들이 외민족의 침입을 초래할 좋은 명분을 외국에 제공해 주리라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로서는 이들 해적(왜구, 수상군사력)을 장악해, 수군력을 확대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적의 병력과 물자 이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아군의 그것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이런 점에서 "막부가 규슈 평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가와조에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취한 조치가 바로 이마가와 료슌(今川了俊)의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임명이었다. 이마가와 집안은 쇼군 아시카가 집안의 일족으로, 료슌은 자기의 所領이 있는 토오도미노구니(遠江國)의 슈고(守護)였으며, 貞治 5년(1366) 41살 때에 '사무라이도코로(侍所)'로서 교토(京都)의 치안유지에 임하고 있는데, 사무라이도코로는 또한 '야마시로노구니(山城國)'의 슈고(守護)를 겸임했다. 또한 료슌은 히키스케(引付)토닌(頭人)이기도 했다.

그가 규슈탄다이에 임명될 무렵, 일본은 규슈 지방을 제외하고 남조세력은 거의 쇠퇴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반대로 규슈는 남조(정서부)에 의해 거의 평정된 느낌이 들 정도였다. 1355년 10월 규슈탄다이 잇시키 노리우지(一色範氏)가 규슈 체재를 포기하고 교토로 돌아간 뒤, 그 아들 잇시키 나오우지(一色直氏)도 58년에 歸京하고 만다. 1360년 3월 막부는 시바 우지쓰네(斯波氏経)를 새로운 규슈탄다이(九州探題)로 임명, 1362년 9월 시바 우지쓰네의 부대가 다자이후 공략을 시도하지만 정서부에 의해 쵸자바루(長者原)에서 격퇴당하고 그 역시 규슈를 떠나고 만다. 貞治 4년(1365) 8월에 막부는 인선에 고심한 결과, 시부카와 요시유키(澁川義行)를 규슈탄다이(九州探題)로 삼아서 현지에 파견해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츄고쿠(中國)지방 근처를 쓸데없이 왕래할 뿐 마침내 규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우왕 2년(1376) 10월, 고려 출신의 일본 승려 良柔와 함께 일본에서 귀

국한 고려 사신 나흥유가 전달한 일본 승려 토쿠소 슈사(德叟周佐)의 편지에, "서해도 일로(一路)의 규슈(九州) 지역에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이 할거하여 貢賦(세금)를 바치지 않은지 이미 20년이 지났다."[97]고 한 것처럼 규슈는 막부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방치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김일 일행이 일본에 온 것이었고 이들이 귀국한 뒤, 막부는 시부카와 요시유키를 대신해서 이마가와 료슌이라는 당대의 일급 인물을 새로운 규슈탄다이로 임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막부의 人選에 대해, 가와조에는

> "이처럼 남군 세력이 전면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오직 규슈의 남군이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탄다이에 어울리는 인물을 잘 뽑아서 규슈의 남군을 제압한다면 남북 내전의 측면에 있어서 요시미쓰의 통일정권은 확립하는 것이다. 막부내부에 있어서 규슈 탄다이의 인선이 신중하게 시작되었다. 시부가와 요시유키의 무참한 패퇴 뒤였기 때문에 임무는 더욱 무거웠으며 인물이나 수완에서 최고급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98]

고 했다. 그러나 남북조 내란은 이미 1330년대에 북조의 우세로 승부는 판가름이 난 상태였고 1361년 7월에 다자이후를 장악한 정서부의 규슈를 제외하면 남조는 이렇다 할 세력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규슈의 남군을 제압한다면 요시미쓰의 통일정권은 확립된다."고 하는 가와조에의 지적은 이미 정서부가 다자이후를 장악한, 1361년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로마치 막부는 정서부의 다자이후 점령에서부터 1370년 6월, 이마가와 료슌을 규슈탄다이에 임명할 때까

97) 「其國僧周佐寄書曰, ㉠ 惟我西海道一路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 且二十餘年矣, ㉡ 西邊海道頑民觀■出寇, 非我所爲, ㉢ 是故朝廷遣將征討, 架入其地, 兩陣交鋒, 日以相戰, ㉣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 禁約海寇」『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 2년 10월.

98)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 『今川了俊』, 吉川弘文館, 1964.

지 만 9년에 달하는 긴 세월 동안 규슈 지역의 회복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료슌 이전의 세 명의 규슈탄다이, 즉 잇시키 노리우지(一色範氏)・잇시키 나오우지(一色直氏)・시바 우지쓰네(斯波氏経)・시부카와 요시유키(澁川義行)가 모두 아시카가씨의 일족이기는 하지만 규슈탄다이에 임명될 당시의 막부 내에서의 지위는 료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규슈탄다이(1336~55년 재직) 잇시키 노리우지는 규슈 경영의 곤란함을 호소해 교토로 돌아갈 것을 아홉 번이나 신청하고 있으며 또 쇼군의 위로를 받아들여 탄다이의 임무를 속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그것이 갖추어지면 계속적으로 주재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쓰고 있다. 탄다이는 그 소재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하카타의 쇼후쿠지(聖福寺)의 지키시안(直指庵)에 얹혀살고(寄宿) 있는 형편으로 내전을 수행할 경제적인 기반은 전무한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탄다이를 수행하는 사람도 불과 2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99]

이에 비해 이마가와 료슌의 경우, 자신이 쓴『難太平記』에 "서쪽 지방을 평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친족과 부하 수 백 명을 전사케 한 부임의 길에 올랐다."[100]라고 한 것과 같이, 자신의 직계 부하 무사들과 일족을 다수 동반하고 현지에 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규슈탄다이에 임명되어 현지에 부임할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여행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그는, 츄고쿠 지방의 여러 호족과 긴밀한 연계를 취해, 규슈를 경영함에 있어서 후방지역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을 미리 차단했고, 규슈의 여러 무사들을 아군에 가세하게 해 규슈에 진입하면 계획이 금방 그리고 충분히 실행되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101] 뿐만 아니라, 동생 나카아키(仲秋)를 나가토(長門) 지

99) 전게 주(99) 가와조에 연구서 참조.
100)『난타이헤이키(難太平記)』19.

방에 체재시켜 선박을 준비하게 하고, 츄고쿠(中國) 지방의 雄族인 오오우치씨(大內氏)와 결혼시켜 규슈 경략의 배후를 굳히고 있었다.[102] "료슌이 전임 탄다이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규슈의 경영에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고 가와조에는 평가하고 있다.[103]

막부의 조치는 비단 이마가와 료슌이라는 특급 인물을 임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츄고쿠 지방의 다이묘(大名)들로 하여금 그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게 했다. 이러한 막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바로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의 파견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규슈 남조를 방치할 경우,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100여 년 전의 몽고·고려 연합군의 침공이 재연되어 일본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막부로 하여금 갖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료슌의 규슈탄다이 임명이 이후의 사태 전개, 특히 日明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서 당시 명과 일본과의 외교 접촉에 대해 무라이 쇼스케의 연구에 의거하면, 명나라의 사절단과 정서부의 가네요시 친왕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홍무 2년(1369) 2월이고 가네요시 친왕이 종전의 강경한 태도를 바꿔서 명 태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견한 정서부의 사신 소라이 일행이 명나라와 접촉한 것이 홍무 4년(1371) 10월의 일이다. 이러한 정서부의 태도 변화의 배경에 대해 무라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104]

---

101) 료슌의 모지(門司) 도해(渡海)에서부터 다자이후에 대한 공격 이후까지 오오우치 히로요(大內弘世) 및 아들 요시히로(大內義弘)를 위시해 이와미(石見, 島根縣)의 周布士心, 빈고(備後)의 야마우치 미치타다(山內通忠), 아키(安芸)의 모오리 모토하루(毛利元春), 깃카와 쓰네미(吉河経見)·나가이 사다히로(長井貞廣) 등, 츄고쿠(中國) 지방의 여러 호족들은 일족을 거느리고 료슌의 군대를 따라서 전전(轉戰)하고 있다. 전게 주(99) 가와조에 연구서 96쪽 참조.

102) 전게 주(99) 가와조에 연구서 참조.

103) 전게 주(99) 가와조에 연구서 참조.

104) 무라이 쇼스케, 「征西府權力の性格」, 전게 주(105) 연구서 참조.

"ⓖ 가네요시(懷良)가 소라이(祖來)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라이가 南京에 도착한 것이 홍무 4년(1371) 10월 14일이라는 것에서 볼 때, 8~9월 무렵일 것이다. 이 전후의 국내 정세를 보면, 정서부는 정평 16년(1361)에 다자이후를 함락해 거의 규슈 전역을 장악했다. 규슈탄다이 시부카와 요시유키(澁川義行)를 규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1360년대 후반이 최전성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371년이라고 하면 그 전성기가 이제 막 끝나가려고 할 무렵이다.

한편, 요시유키에 대신할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교토를 출발해 친제이(鎭西)로 향한 것이 이 해 2월 19일. 5월 19일에 아키노쿠니(安芸國)누마다(沼田), 9월 20일에 이 쓰쿠시마(嚴島), 10월 8일에 나가토노고쿠후(長門國府)로 이동, 12월 29일에 바다를 건너 모지(門司)에 도착하고 있다. ⓗ 느긋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그 위협은 확실하게 다자이후에 전달되어 가네요시 친왕에게는 과감한 상황 타개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조질(趙秩)이 일본으로 출발한 것인 홍무 3년(1370) 3월이니까, 늦어도 그 해 안에는 다자이후(大宰府)에 도착, 그 다음 해에 걸쳐서 가네요시가 있는 곳에서 체재했을 것이다. 조질의 설명으로 가네요시는 명나라의 요구가 왜구 금압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권력은, 왜구 세력을 군사력의 일부로 조직하고 있었던 정서부(征西府)말고는 없다.

그리고 명나라의 또 하나의 요구인 칭신입공(稱臣入貢)을 받아들이면, 그는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적 배경을 얻어 무가 측에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공무역을 독점함으로써 경제기반도 충실해질 수 있다. ⓘ 료슌(了俊)의 도해(渡海)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외교방침을 180도 전환하는 데에 이것은 충분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닐까?"

무라이는, 정서부의 가네요시 친왕이 예전의 對明 강경외교에서 '稱臣入貢'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환한 이유로, 이마가와 료슌이 막부의 전폭적인 지원 체제하에 대거 규슈로 진공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의 변화에 위협을 느꼈던 것을 들고 있다.[105]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무 5년

105) 무라이는 정서부의 강경 외교 방침이 급변한 이유에 대하여 "명의 금왜 요구와 칭신입공을 수락하면 얻을 수 있는 명의 군사적 배경과 아울러 조공무역의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그 반사이익으로 얻을 수 있음"을

(1372) 5월 말에 정서부에 파견된 명나라의 사신 仲猷祖闡과 無逸克勤 일행이 하카타에 도착해 료슌의 부하들에게 구금당할 때까지 일체 막부와 명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없었던 점이다. 즉, 무라이의 추정이 옳다면, 정서부의 대명 강경 외교가 급변하게 된 것은, 이마가와 료순의 규슈탄다이 임명과 그 지원을 통한 막부의 규슈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그 배경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이 초래한 것이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은 소강상태에 있었던 남북조 내란을 단숨에 급진전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4. 결 론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이, '경인년(1350)의 왜구' 발생 이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체된 배경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그것은 원나라 조정에 대해서는 왜구의 심각한 침구 사실을 숨기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북쪽 국경의 동요와 이에 연계한 내부의 혼란을 숨기기 위해 자제하는 對元 및 對日 외교 정책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 파견은 기존의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원나라 조정의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고려 조정 단독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고려 조정은 원나라의 존재를 이

제시하고 있다. 전게 주(105) 무라이 연구서 참조. 그러나 그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명의 침공 위협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일본의 공권력의 일방(一方)인 가네요시 친왕의 입장에서 볼 때, 막부의 군사적 공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명의 침공까지 받아 동서에서 협공당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는 가네요시 친왕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용함으로써 금왜사절 파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김용 일행을 파견한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일을 금왜사절로 파견한 것은 김용은 원나라 첩장을 전달하는 사절, 김일은 고려 국왕의 첩장을 전달하는 사절로 일본 측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절을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파견함으로서 일본 측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려 조정의 의도는 적중해 당시 일본 지배층은 몽고와 고려의 사신이 연달아 금왜를 요구할 목적으로 온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것은 약 1세기 전의 몽고와 고려 연합군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침공의 기억을 되살려놓아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그 결과, 드러난 일본 측의 반응은 가와조에씨가 추측한 대로 막부가 규슈 평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했고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막부의 일급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마가와 료슌의 규슈탄다이 임명과 그의 규슈 남조의 타도에 전폭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즉, 두 차례의 몽고 침공 당시에 거국적으로 대치하기 위해 가마쿠라 막부가 국내의 해적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포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일본 국내의 해적들이 오히려 외침의 명분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상, 무로마치 막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해적(왜구)의 금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막부가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의 渡日 단계에서, 왜구와 규슈 남조(征西府)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왜구를 금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슈 지방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공권력의 회복이 절실했던 것이고 그래서 규슈 남조(정서부)에 대한 적극적인 토벌이 추진되어야 했다.

새로운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을 중심으로 한 막부의 대대적인 규슈 남조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서부의 가네요시 친왕은 예전의 명나라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바꾸어 조공을 바치고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바로 이마가와 료슌의 규슈탄다이 임명과 그를 통한 막부의 적극적인 규슈 정세에 대한 개입이 있었고, 그것은 또한 바로 공민왕 15년의 금왜사절의 파견이 초래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금왜사절의 파견은 소강상태에 있었던 남북조 내란을 단숨에 급진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 : 2007. 2. 13 심사완료 : 2007. 2. 26

【ABSTRACT】

WAKOU(JAPANESE PIRATES) with East-Asia international state of things of 14 centuries

Yi, Young

The king of Kongmin of Goryo dynasty dispatched diplomacy to Japan in the year of 1366 to request the prevent of Waegoo(Japanese pirates). It was but the dispatch of diplomacy to be achieved which Waegoo(Japanese pirates) have invade for 17 years since happen in back. The purpose which Goryo dynasty does not dispatch the diplomasy for 17 years to Japan is not to show the confusion of the inside. And the dispatch of diplomasy is according to the own purpose of Goryo, it used the Mongol to maximized the effectiveness. The such intention of Goryo hits. That time Japan adjustment realized that before about 1 century, the Goryo — Mongolia allied forces had invaded Japan two times and Japan was fall into the fear with the impact. Japan, as a result, began wear the positiveness at military attacks in about a Gyusyu area. It was the dispatch of a new commannder of muromachi bakuhu(Gyusyu tandai) Imagawa ryosyun and the setup of the system to support him. In this way, the dispatch of diplomacy of the year 1366, became the momentum to make

progress civil war which staied at the lull situation.

【key words】

kyushutandai, imakawa ryosyun, seisei-hu, ittsiki noriuzi, zingo-kougu, prince kaneyosi, zhou wuen zhang